

증시 활황에 투자대금 10조 돌파...시총은 5조6000억 증발

지난달 10조824억원 거래 한달새 19.1% 늘어 한전 등 급락에 지역상장사 비중 0.2%p 하락

지난달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간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5조원이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는 급증해 첫 10조원을 돌파했다.

9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의 '5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 상장법인 39개사(유가증권시장 16개·코스닥 시장 23개)의 시가총액은 34조9365억원

으로 전월보다 5조5857억원(-13.8%)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증시 시가총액이 24.2% 증가한 7523조원으로 집계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지역 상장사의 전체 증시 비중도 축소됐다. 광주·전남 상장사의 시가총액 비중은 4월 말 0.7%에서 5월 말 0.5%로 0.2%p 하락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광주·전남 시가총액

구분	전체	지역별		
		광주	전남	합계
2026년 4월말	60,581,462	40,462	364,760	405,222
2026년 5월말	75,229,024	34,536	314,829	349,365
변동액(률)	14,647,562(24.2)	△5,926(△14.6)	△49,931(△13.7)	△55,857(△13.8)

32조2239억원으로 전월 대비 13.6% (5조 844억원) 줄어들고, 코스닥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2조7126억원으로 15.6% (5013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전력과 대한조선의 시가총액이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전력 시가총액은 24조9724억원으로 전월(27조9575억원) 대비 2조9851억원

(10.7%) 감소했다. 대한조선의 시가총액도 2조4072억원으로 전월(3조4481억원)보다 1조409억원(30.2%) 대폭 감소했다.

이 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국첨단소재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의 열기는 더 올라갔다. 5월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

광주·전남 투자자 거래대금

구분	전체	지역별		
		광주	전남	합계
2026년 4월	13,220,520	60,856	23,777	84,633
2026년 5월	17,296,718	74,880	25,944	100,824
변동액(률)	4,076,198(30.8)	14,024(23.0)	2,167(9.1)	16,191(19.1)

은 10조824억원으로 전월보다 19.1% 증가했다. 특히 월 거래대금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광주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7조4880억원으로 23.0%, 전남은 2조5944억원으로 9.1% 각각 증가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거래가 크게 늘었다. 지역 투자자의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7조7200억원으로 전월보다 34.7%

증가한 반면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2조3624억원으로 13.5%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 관계자는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증가는 대내·외 불확실성 감소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등으로 기관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고치를 경신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아파트 분양시장 기대심리 '퐁퐁'...전남 최하위

광주 전망지수 '55.6' 뒤이어...미분양 적체·금융규제에 위축

전남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지수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지역도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바닥세를 면치 못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광주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55.6으로 전월(80.0) 대비 24.4p 폭락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낙폭이다.

전남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50.0으로 전월(62.5)보다 12.5p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고, 광주가 그 뒤를 이었다.

분양전망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시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주산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장 흐름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적체와 공사비 부담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사업자들의 분양시장 기대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 평균 분양전망지수(69.4)는 전월(80.0)보다 10.6p 떨어지며, 여전히 기준치(100.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3p(85.6→

84.3) 하락했고, 비수도권은 12.6p(78.8→66.2)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0을 유지했다.

주산연은 "전세난에 따른 매매 수요 전환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북(81.8)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19.7p ↓), 대전(18.9p ↓), 부산(16.6p ↓), 충남(15.6p ↓), 경북(13.2p ↓) 등의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3p

상승한 109.0로 나타났다. 이는 증등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량 불안으로 나프타, 아스콘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사비 부담이 확대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9.5p 상승한 92.6으로 집계됐고,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4p 하락하며 98.6을 기록했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의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존 미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전세난에 따라 전세 수요 일부가 미분양 단지로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KOSPI 8,096.93
Hana Bank
▲ 612.52 (8.18%)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12.52p(8.18%) 오른 8096.93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하루만에 8% 급반등 8000선 회복

코스피가 9일 8%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80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3.35p(2.85%) 오른 7697.76으로 출발해 612.52p(8.18%) 오른 8096.93으로 마감했다. 이는 역대 최대 코스피 상승폭으로, 2위는 지난달 21일 기록한 606.64p다. '검은 월요일'이었던 전날의 낙폭(-8.29%·676.18p)을 대부분 되돌려놓은 모습이다.

이같은 급등장에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각각 장 초반부터 사이드카가 발달되기도 했다.

다만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전장보다 19.04% 오른 91.23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직후 기록한 올해 전 고점(83.58·3월5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 증가 기준 역대 최고치로 금융위기가 당시인 2008년 10월 29일(증가 89.30)을 넘어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2조5042억원 순매수로, 그중에서도 금융투자 기관이 1조8669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개인은 6169억원 순매도 전환했다. 외국인도 1조9850억원 순매도로 22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임재용 기자

삼성, 관계사 모든 업무에 AI 도입

삼성이 전체 관계사 모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는 등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에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AI 대전환'에 나선다.

삼성은 AI 시대를 주도하고 도약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사장단과 임원,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등 기업 DNA 자체를 AI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 DNA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며 "연구개발(R&D)부터 생산·마케팅·지원 등 모든 업무 밸류체인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삼성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Gemini, ChatGPT, Claude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마케팅 분야의 업무 생



삼성 관계사 임원들이 인력개발원 창조관에서 AI 집중 교육을 받고 있다.

산성 제고는 물론, 개발, 제조 등 전 업무 영역에 대해적으로 AI를 적용해 이를 통한 업무혁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특히 관계사 전체 사장단을 대상으로 AI 집중 교육인 'AX(인공지능 전환) Boot Camp'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 사장단을 대상으로 AI 집중교육

R&D부터 생산·마케팅·지원 등 밸류체인 접목 전 사장단 인력개발원서 교육...전담조직 신설

전 관계사 임원 교육은 오는 8월 12일까지 각 차수별로 2박 3일간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과 인력개발원 창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은 이번 사장단과 임원 교육을 전사적 AX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고, 경영진들이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조직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가 교육을 지속한다.

또 AI 교육기간 동안 사장단은 수동적으로 교육받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한 각 사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직접 발표한다.

이율리 삼성은 전 관계사에 AI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AI 전담조직은 AX 추진 전략 수립, 데이터 및 모델 운영 관리, AI 인재 육성 등을 전담하며 그를 전반의 AX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여수광양항, 에너지 공급 거점항만 기대감

올해 두번째 자동차부두서 LNG 급유 성공

여수광양항이 에너지 벙커링 거점항만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5~6일 이틀간 여수광양항 자동차부두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전용선 BLUE WHALE호를 통해 자동차 운반선인 CMA CGM MONACO호(7만t급)에 1020t의 LNG 공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여수광양항은 최초로 지난 2023년 포스코 원료부두에서 LNG 벙커링을 실시한 이래 지난 3월 자동차부두에서

두 번째, 그리고 이번엔 자동차부두에서 벙커링 작업을 실시, 총 3회의 LNG 벙커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LNG 벙커링은 자동차 하역과 LNG 연료 공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020t의 LNG를 공급했다.

특히 자동차 하역 작업과 LNG연료 공급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선박의 정박시간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거점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번째로 벙커링 작업을 실시한 LNG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5~6일 여수광양항 자동차부두에서 LNG 벙커링 전용선 BLUE WHALE호를 통해 CMA CGM MONACO호(7만t급)에 1020t의 LNG 공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는 기존의 선박유와 대비, 황산화물(SOx)과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저감 시킬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항만공사는 해운환경 변화에 따라 에너지 공급 거점항만으로 육성기로 하고 벙커링 인센티브 지원, 제도 개선을 하고 있으며 LNG터미널 확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광주 북구·목포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선정

오는 7월부터 광주 북구와 전남 목포 등 2개 지자체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전국 12개 기초지방 정부를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국 12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지역에서는 광주 북구와 전남 목포가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울 광진·은평구, 경기 광명·수원, 충남 서천, 대전 중구, 전북 정읍, 경북 구미, 경남 거창, 제주 서귀포 등이 포함됐다.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상 생리대 공급 지시에 따른 사업으로 소득과 연령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대상이다.

'모두의 생리대'는 필요한 순간에 누구

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재란 의미가 담겨있다.

정부가 연령·소득 무관 모든 여성에게 공공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사업에는 올해 국비 3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는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성평등부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을 지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지원이나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고 교육청별로 학교 보건실을 통해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식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연령·소득 무관 모든 여성으로 확대했다. 접근성도 개선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